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9월 ~ 10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시험법, 디클로베닐, 제 초제, 잔류농약, 통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시험법, 디클로베닐, 제초제, 잔류농약, 통관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년 4월 4일 [2016년 4월 4일 생식 발 0404제 5호] 시험 법 일부 개정 2016년 10월 28일 [2016년 10월 28일 생식 발 1028제 1호] 시험 법 일부 개정 2017년 3월 6일 [2017년 3월 6일 생식 발 0306제 4호] 시험법 일부 개정

핵심이슈 도축

일본 후생노동성, 건강식품 규제 강화를 위해 식품 위생법 개정 검토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후생노동성, 건강식품 규제 강화를 위해 식품 위생법 개정 검토

후생노동성은 최근 일본에서 예방이나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식품'과 관련하여 안전성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지난 11월 8일, 관련 규제를 강화를 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열린 후생노동성 관련자 회의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한 보고서가 승인되었다. 후생 노동성은 내년에 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는 '식품 위생법 '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건강 효능을 표시하는 식품이어도 성분의 함량과 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다. 상기 승인된 보고서에서는 건강 식품의 제조 공정을 관리,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게 국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 9월 일본에서는 미용 효과를 가진 식물 성분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를 포함한 건강식품에 대해 여성 소비자들이생리 불순이나 부정 출혈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이에 9월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를 포함한 식품 취급에 대해 주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candollei var.mirifica)는 태국 북부 등에 분포하는 콩 식물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관련 제품의 생산 관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 피해정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는 후생노동성에 의해 제품 판매 중단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하였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현재 일본에서 '건강식품'은 법적 정의가 없다.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8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서 현재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품목은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 기능 성 표시 식품뿐이지만, 세 품목으로 승인받지 않은 식품도 건강 효능을 과장 광고하면서 유통되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출하고자하는 건강식품이 일본 내에서 규제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건강 효능을 표시하고자 하는 범위를 건강식품 각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여, 적절한 인허가를 취득한 후 제품을 수출해야 할 것이다. 건강식품 관련 규제 정보는 소비자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표시 정보: http://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promotion/

기능성표시식품 정보: http://www.caa.go.jp/foods/index23.html

